

미주한인교회 4,016개, 주별 1위 CA

2위-뉴욕, 3위-뉴저지...전년도 비해 감소세 보여

본지 '2016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2015년도(11월말) 미국내 52개 주 한인교회 수가 총 4,016개로 집계돼, 전년도(2014년 말 4,135개) 보다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7개국의 한인교회는 1,260개(2014년 1,295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연례대로 캘리포니아 1,163교회(1,219), 2위 뉴욕 416교회(420), 3위 뉴저지 255교회(260), 4위 버지니아 199교회(217), 5위 텍사스 195교회(198)로 1위부터 4위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5위는 위싱턴을 제치고 텍사스가 차지했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최다 교회수를 나타낸 5개 주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보다 모두 감소세를 보여 미국내 한인교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6위는 조지아로 지난해보다 1순위를 올랐으며 교회 수도 193개로 지난해보다 2교회가 추가됐다. 7위는 위싱턴 189교회(202), 8위 일리노이 173교회(186), 9위 메릴랜드 148교회(150), 10위 펜실베이니아 113교회(114)가 차지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위싱턴이 2순위가 밀렸을 뿐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6위부터 10위도 2교회에서 많게는 13교회까지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지구촌 목회, 목회자교육이 최우선순위!

CT, WEA R. 리차드 박사의 2016 방콕 컨그레스 보도



선교는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사역”이 아니다. 특히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그만큼 선교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리더를 발굴, 육성해 계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메스 리차드 박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선교지 현장에서 리더들을 발굴하는 사역(a global proclamation organization reaching leaders worldwide)을 맡아 진행하면서, 선교는 곧바로 목회로 연결돼져야만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선교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목회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Training Pastors: A High Priority for Global Ministry Strategy: Dr. Ramesh Richard shares about the need to train pastors for global ministry).

전세계 하루 5천명 세례, 개척교회 70% 1년내 폐쇄...단기 목회훈련 필요

컨그레스 목적: 1)공동체 세우기 2)기회 제공 3)교육자원 발견 4)상호격려

리차드 박사가 말하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구촌 목회 사역 전략'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점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시돼야 한다:

1. 세계
 2. 믿음
- 현재 지구촌 인구는 72억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더 자주 구주이신 예수를 전하는 예측과 수정이 가능한 실제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2억3천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명목적이다. 다시 말



해서, 인구 조사나 종교를 묻는 질문에 그저 크리스천이라고 답하고 있다. WEA 신학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5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4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인론인들, 목숨 걸고 펜으로 불의 고발!

3면

신/년/설/교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선교의 창
송중록 목사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선교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들
역서: 선교학 사전(공역)
저서: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한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DSMC 회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어떻게 리더십은 어떻게

신광섭 교수

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 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7509 | WWW.LJKC.ORG



시론

“세 가지 상처를 주옵소서!”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2016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특히 내가 늘 사용해왔던 너무나 상투적인 “희망찬” 새해라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였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무엇을 희망해야 정당한가, 그리고 무엇을 참으로 염원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줄리안(Julian)의 평생의 희망 내지는 기도제목을 만나게 되었다. 14세기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던 성녀 줄리안은 흑사병이 만연하여 민심은 흉흉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으로 경제가 파탄해진 가운데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All shall be well!)라는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일깨웠던 사람이다. 교회사에서 신비주의자로 분류되는 줄리안은 30세 어간부터 16년에 걸쳐서 환상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추구한 사람이었다. 줄리안은 32세 때에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간구했다. “내 삶 속에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불같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세 가지는 통회(Contrition)의 상처, 긍휼(Compassion)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Yearning)의 상처다.” 그녀는 이 세 가지 상처는 약(藥)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해야 비로소 치유된다고 하였다.

줄리안은 자신에게 통회의 상처를 달라고 기도하였다. 통회의 상처란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상처는 우리를 정결한(Clean) 사람이 되게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뱉속 깊이 슬퍼하기를 원하였다. 그녀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회개의 아픔으로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범죄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그 슬픔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다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떠나 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교회의 직분이라도 맡게 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겉으로는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감(罪感)은 무더지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이나 해아리고 남의 죄나 간섭하기 심상이다.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죄악된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줄리안은 통회의 상처가 쿡쿡 찌실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구하였다.

또한 줄리안은 긍휼의 상처를 구하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 같이 마음 아파함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Ready)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긍휼의 상처가 있다면 죄 많고 불쌍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경건이 ‘습관적인 봉사’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A. W. 토저牧사는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리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는데 막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냉정하다는 것이다. 교리에는 정통하다고 자랑하면서도 긍휼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도 그렇다. 목회를 해온 세월이 깊어지면서 교인들의 아픔에 자주 무덤덤해지는 것을 느낀다. 예의는 차리고 말은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나의 무정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목회 초기에 봉제업을 하는 교인의 공장에 들어서다가 많은 실망 만지 때문에 숨이 막히고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이런 현장에서 24시간, 365일 일하는 교인들의 아픈 현실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좋은 목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런 초심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줄리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구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도록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있어야 존귀한(Worthy)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오, 하나님! 불치(不治)의 향수병(癡癡病)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소서. 이 세상이 저의 고향이 아니오니, 어찌 이곳에 정착하리이까? 어찌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저에게 이 상처를 주시고 제가 늘 향수병에 시달리게 하소서.”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미치도록 그리워해본 것이 언제였나 싶다. 하나님께만 끝몰하여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목말라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목사로 거듭나고 싶다. 올해, 아니 평생 줄리안의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뵈내라도 내는 목사가 될 것 같다.

언론인들, 목숨 걸고 펜으로 불의 고발!

뉴스위크, 마약 카르텔과 부패 관리로부터 협박/피살당하는 멕시코 사회 총체적 부정 보도

멕시코시티의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아나벨 헤르난데스는 2015년 11월 집을 습격당했다. 그녀는 “괴한들이 내 아파트에 침입했지만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탁자 위에 현금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 파일을 뒤졌다. 협박 행위였다.”

헤르난데스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부패한 정부 관리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베스트셀러 '나르코랜드(NarcoLand)'를 펴낸 뒤 술한 살해 위협과 공격에 시달렸다. 이번 주택 침입도 그와 관련된 최근의 공격 사례다.

헤르난데스는 현재 중요한 사건 2건을 추적 중이다. 2014년 8월 남부 게레로 주에서 아요치나파 교육대학 학생 43명이 시위 도중 실종된 사건(전원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과 2015년 7월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엘 차보' 구스만의 탈출 사건이다. 그녀는 “정부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탐사 보도”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헤르난데스의 주택 침입 외에도 저명한 멕시코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여러 건 발생했다. 11월 20일 뉴스 웹사이트 데스인포르메모노스의 편집국장 클로리아 뮤노즈 라미레스의 아파트를 누군가 급습했다. 해커가 데스인포르메노스 서버를 공격한 지 일주일 뒤였다.

며칠 뒤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엘우니베르살 칼럼니스트 마이테 아주엘라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주엘라의 눈을 감게 칠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아래는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너를 죽이겠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1월초 뉴스위크는 마약 카르텔과 부패 관리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에도 목숨 걸고 뛰는 멕시코 언론인들의 모습을 보도해준다(MEXICAN JOURNALISTS ARE BEING THREATENED, BLACKMAILED AND MURDERED).

멕시코의 언론인은 한편에선 마약 조직, 다른 한편에선 부패한 관리들의 폭력과 협박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 인권단체 아티클19에 따르면, 근년 들어 언론인 공격이 부쩍 늘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재임(2006-2012년) 동안 평균 이틀에 한 번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 아래선 22시간에 한 번으로 늘었다. 2000년 이래 멕시코 언론인 16명이 실



2000년 이래 멕시코 언론인 16명 실종 88명 피살...작년엔 7명 사망 가해자들 처벌 안받아...결과는 대중의 언론 불신... “민주국가 아니다”

종됐고 88명이 피살됐다(2015년 7명이 사망했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언론인이 가장 위험한 나라는 멕시코다. 2010년 이래 미주 지역의 언론인 피살 사건 중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발생했다.

아티클19의 다리오 라미레스 사무총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멕시코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보의 블랙홀이 있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한다. 언론인 대상 살인과 공격이 수십 건 발생했지만, 체포된 가해자는 소수이며 기소 건수는 더 적다. 국제언론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카를로스 라우리아 대

표는 “멕시코의 사법체제가 엉망”이라며, “처벌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조치는 있었다. 2012년 페냐 니에토 정부는 인권수호자·언론인 보호 기구를 설립했다. 그 기구는 2015년 헤르난데스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헤르난데스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그런 기구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우리집 침입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 이런 면책은 그런 기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5년 7월 멕시코시티에서 유명한 사진기자 루벤 에스피노사가 피살되

자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거셌다. 오래 지속되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여러 주에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흔해졌지만, 유명 언론인이 멕시코 수도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용의자 체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개교 30주년 기념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MBA - 리더십 전공 Doctor of Leadership - 사역리더십 전공

MBA Degree (48 Credit hours) Leadership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Degree Program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DL Equivalent Program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자격: 1. 학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자 (전공에 관계없음)

2. 연구과정: 수업은 동일하며 전문분야 종사자, 학력제한 없음.

2016년 1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 중
20명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발행
- 2) 직장 및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으로 학점 취득 중 언제든지 미국에 유학와서 남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하고 1년 동안은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기회 가능
-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 4)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학위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입니다

미국연방정부 교육부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USDS J-1 Visa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한교수, 연구원, 전문가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전공무관) 인턴십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좋은 기회: 선교사 안식년에 J-1 비자를 받아 본교 세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J-1 VISA 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희철교수 (hcleee@midwest.edu)께 문의 바람.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636) 327-4645. usa@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시민들 의식을 오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의 의도

지난 1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의원들의 계속 되는 반대를 무시하고 “총기규제”를 강화 하겠다고 두개의 “executive orders(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를 통과 시킴으로 새해 초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까지 진행되는 뜨거운 감자 “총기규제” 논쟁

한인사회 안에서는 어쩌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설립한 건국아버지들과 그런 미국을 지키고 세워나갔던 선조들의 가치관들을 보면 우리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아무리 급하고 심각한 이슈들이 있었어도(전쟁들을 비롯하여) 미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의논하고 투표를 통한 후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이번의 오바마 대통령의 “executive orders”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있을 수 없는 “대통령 권력남용”이라는 것이 보수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그가 법률로 하소연하면서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연설한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통계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큼니다.

따라서 저희 크리스천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안에 진짜로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 핵심이슈들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늘고 있는 기독교 핍박: 예를 들어 이슬람 테러로 인해 미국 안에서 뿐 아니라 미국 밖에서 죽은 “미국 시민들”의 숫자는 언론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으며, ISIS로 인해 또한 변화되는 미국의 문화를 통해 미국 안에서까지 핍박의 목표물이 되어지고 있는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고한 피해는 언급되지도 않았습니

다. 법으로 정당화 된 살인: 더 나아가 보호되어야 할 태아를 “여성의 인권, 여성의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 낙태 살해되고 있는 생명은 CDC 및 건강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에 의하면 매년, 거의 1,200,000명이나 된다는 보고서입니다! 즉, 2014년에 일어난 모든 범죄를 종합한 것보다 더 높은 숫자의 태아들이

들이 학살됨. △러시아: 1929년 총기규제법이 생긴 후 1929-1953년 2천만 명의 반공산주의자들을 학살 △나치 독일: 1928-1938년에 총기규제법이 생긴 후 1933-1945년 1천3백만 명의 유대인과 반나치인들을 학살. △중국: 1935-1957년 총기규제법이 생기고, 1949-1952/1957-1960/1966-1976년 2천만 명의 반공산주의자들을 학살. △과테말라: 1871-1964년 총기규제법이 생기고 1960-1981년 10만 명의 마야 인디언들을 학살함. △우간다: 1955-1970년 총기규제법이 생긴 후 1971-1979년 30만 명의 기독교인과 정치적 경쟁자 학살. △캄보디아: 1956년 총기규제법이 생기고 1975-1979년 1백만 명의 지식인들 학살.<리스트 Reference: http://www.mercyseat.net/gun_

사람의 손에 있는 무기에는 잘못 없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심각한 죽을병 들어

먼저, 무분별한 총기소유는 정신이 울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그가 “총기규제”를 강화시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은 듣기에는 참으로 옳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을 알고 나면 그의 연설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단면적이며,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하는 Facts & Myths: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 대통령
일반 주요(자유파) 언론들은 이 논란의 흐름을 “총기규제”로만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더 핵심적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리게 된 결정과 과정들이 미국 수정헌법 1st & 2nd Amendment(1조 & 2조)까지 무시한 “비헌법적 명령”이었다는 사실에 보수파 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또 한번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FBI 및 수사관 통계 사실-총기 사건 vs 일반 범행

FBI에서 9월 28일 2015년에 발표한 미국내 지난 12년간의 “총기사건” 범행들을 비롯하여 모든 “Crime Statistics – 범죄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4년에 일어난 모든 범죄는 1,165,383건이 있었는데, 그 중 총을 사용한 의도적이나 실수로 행해진 “폭행범죄”로 인한 살인은 2013년도 범행통계에만 비교해도 거의 0.5%에서 1%가 줄었고, 절도나 파손 죄는 거의 5.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폭행과 연결된 범행들은 2%에서 2.4%가 늘어났다는 보고입니다.

2014년 FBI 통계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한 범행들의 통계는 총 범죄에 비교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인구: 3억2천3백만 명 △살인 및 자살: 8,124(0.7%) △절도 및 파손: 118,092(10%) △성폭행 관련: 148,531(12.7%) △미국 안에 등록된 총기숫자: 3억정

결국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과 범인들의 범행원인들은 ‘총기소유’가 아닌 다른데 있다는 결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매년 낙태로 살해된다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Sex Education”으로 희생되는 자녀들: FBI리포트에 의하면 총기 없이도 “성폭행” 범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서인데, 지난 수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세계 역사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정부가 “총기규제” 법안을 국가적으로 극대화 하는 경우, “규제의 정책과 방침”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냥 “규제”가 될지 아니면 “금지”까지 갈지는 실제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몇 가지 세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이 개인과 가정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을 제한(eliminate) 시키고 정부가 모든 “힘의 권한”을 가질 때, 그러한 정부들은 대부분 폭정적 국가들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 1886-1911년 총기규제법이 생긴 후 1915-1917년 1백-1백5천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genocide.html>

결론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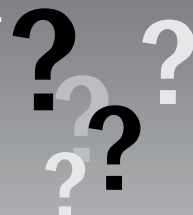
사람의 손에 있는 무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심각한 죽을병이 듭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진정한 “정의”가 사라지고 교육청도 사회도 국가도 심각한 죽을병으로 모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주시하고, 역사를 통해 사실을 통찰하고, 성경적인 견해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시대의 현상을 파악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깨어 주시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 사랑하는 다음세대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들과 시민들을 억압하는 공산리더들의 “총기소유”에 대한 다른 가치관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지 쳐 박아두고 잘 읽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양피지에 필사하였고 필사하는 데는 전문 필사가를 통해 엄청난 노력과 수고비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가진 신구약 66권을 옛날식으로 전문가가 필사하는 데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팔로스 버디스에서 고등부 교사 Ryu

A: 미국의 유력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제 1위가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66권이 아닌 몇 권만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나머지 평민들은 성경을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왕과 귀족들도 성경 한 권 갖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는데 읽을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가 나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열람이 받아 적고 나중에 구구절절 암송했습니다.

성경 한권 필사에 3백만 달러...새해부터 열심히 읽기를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이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이 전부 양피지에 손으로 쓰여진 필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서기관이나 필사자들이 썼습니다.

1000년 전만 해도 제일 좋은 신랑감이 필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일급 필사자가 성경본문 백행을 베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사본의 양은 대략 2600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본 하나를 만들려면 일급 필사자가 26개월이나 일해야 했습니다. 현재 기술적 노무자가 한달 동안 일한 대가가 최소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마태복음을 하나를 전문필사가가 베끼는 데는 약 5,200만원 정도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피지에 필사한 마태복음 한 권이 5200만원 정도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천년전 만 해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를 제대로 필사하는 데는 계산하면 약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백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해냄으로서 각 개인의 손에 쉽게 성경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상 제 1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백만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야 필사할 수 있는 이 66권의 귀중한 성경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소유하고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내팽개쳐 둡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기본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들어있는 이 귀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특히 새해부터는 이 3백만 달러의 가치가 되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SHEPHERD
UNIVERSITY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만 아니라 **WASC** 및 **ACICS** 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군 장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TITLE 4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 Program)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K 동시 통역 강의

왜 쉐퍼드신학대학인가?

1

타 신학대학과는 다르게 WASC, ACICS, ATS 연방 교육국 인준을 통하여 타 [일반 명문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2

목회, 성적, 근로, 가족 장학금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3

미국 전역 군인 정부지원 무상학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미 군목(장교)로 자원 입대가 가능합니다.

5

온라인 통신 과정과 동시 통역 강의를 제공합니다.

6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 정회원으로 인증된 학위뿐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원로 학장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www.shepherduniversity.edu

찰스 크래프트 박사

BABS (신학 학사)	126 학점
M.Div (목회학 석사)	96 학점
D.Min (목회학 박사)	42 학점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5)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고통가운데 있는 이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려울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실수나 잘못들을 돌이켜보며 그 잘못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격언처럼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따라서 고난가운데 있는 나는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왔다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죄를 짓지 않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원인이 없는 병이 없듯이 고난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확신은 우리자신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진단을 내리기를 원한다. 병의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라면 죄의 고백은 고난이라는

난관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니 잘못이 있다

야기 아닌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환상과 함께 자신이 연구하고 조사해본

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요한 1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한다(1:10).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밤에 환상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창조주보다 더 깨끗하겠는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다(4:16-17). 엘리바스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교활하고 지혜로운 자를 낮추시고 낮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이며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시 것이라고 확신한다. 맞는 이

결과 얻은 결론으로 욥에게 내어 놓는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실존적인 위기임을 알린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있는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려고 하지만 심한 고통에 있는 욥에게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희망도 인생의 의미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욥에게 절망과 인생의 허무함이 엄습한다. 죽음의 난간에 서 있는 이에 인간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논하는 것은 벌써 밧힐 대로 밧히고 상할 대로 상한 그의 영혼

에게 더 아픔을 주는 불의한 행동인 것이다(6:29).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의 잣대를 언제, 어떤 상황에,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해야하는가 하는 해석학에 있어서의 문제를 욥은 제시하고 있다. 고통을 단순히 죄의 결과 또는 하나님의 훈계 또는 훈련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고통 받고 있는 이의 아픔을 사소화 시키며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욥이 구하는 신학은 따라서 정통을 주장하며 인간의 고통의 삶에 고개를 돌리는 차가운 신학이 아닌 비정한 고난의 현실에 대항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연민과 자비의 신학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나남겨서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주위에 몇몇 아는 분들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기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도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격려의 말”들은 나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험 감독하고 나는 인생에 가장 큰 이 시험을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 친구목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하시는지 배우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목사는 나에게 여

다 무의미해지며 진정한 나와 대면하게 된다. 고통을 통해 인간은 진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욥의 결백함은 따라서 그의 자존심 또는 불경함의 표현이 아닌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나는 본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함으로써 욥은 그의 고난이 음보적인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부정하지 않는다(9:2). 그러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9:19). 욥이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말하며 그 섭리에 자신의 경험을 종속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경험에 충실하며 그것들의 진정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의의 신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차원 높은 신앙임을 욥은 말하고 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역설적으로 질문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듯이 욥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살아온 의로운 삶을 부정하기를 거부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의미이다.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형식적인 죄의 틀에 가두며 하나님의 의를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우리의 의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람직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james.lee@itsla.edu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8)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합감리교회 담임)



아간만 죽었는가? 아간의 가족도 죽었는가?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 골짜기를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골 골

짜기가 이 찬송으로 인하여 유명해졌다. 이제 이 골짜기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고 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성을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탈물을 다 불태워버

리지 아까웠는지 아무도 모르게 일부를 감춰두었다. 당시 여러고 전투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취물을 취한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고 성 전투에 이은 아

간만 죽었는가? 아간의 가족도 죽었는가? 신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진노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공동체의 연대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수7:24-25).

개역개정에는 아간만 처 죽이고 가족들은 죽이지 않은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것일까? 히브리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그들을(혹은 그것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다. “그들”을 아간의 짐승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간의 가족들로 보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아간의 재산으로 보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간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마도 새번역 성경처럼 아간만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돌로 쳐 죽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아간만 처 죽일 계획이었다면 그의 가족들은 왜 끌고 간 것일까? 아버지와 남편이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면 물을 것이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애꿎게 그의 가족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의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숨겨준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들도 같이 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들도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 것이 ‘연대 책임’이다.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연대 책임’이다.

jinhlee1004@yahoo.com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메μφ스 연합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2. 목회경험 5년 이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성장 과정, 신앙 여정 및 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내용, 사진포함)
3.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 및 목회 방침 계획)
4. 설교 CD 또는 DVD 2개
5. 목사 안수증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6. 추천서 1통

서류 제출방법

1. 제출 마감: 2016년 2월 5일
2. 서류 제출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777 S. Germantown Rd. Memphis TN 38141
3. 문의: 청빙위원장(이춘욱 장로)
전화: 901-570-0815
Email: edlee112@hotmail.com

www.ukpcmempis.org

메μφ스연합장로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은

45개교에

복음화

전도

기대

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리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필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힐링캠프 기도원



이전자 목사

참과 회복이 있는 기도 공간.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저지교협(회장 이의철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월 24일 (주) 오후 5시 뉴저지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무료이며 헌금은 구제사역과 후원에 사용된다.
▲문의: (201)815-9254 총무 홍인석 목사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신년기도회 및 선교와 부흥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무디 생가와 윌리엄스 칼리지 등을 방문하면서 신년 첫 행사를 갖는다. 1월 18일(월) 오전 6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출발한다. 회비는 30달러. 이메일(nyakacag@gmail.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347)721-6003, (646)258-4161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예배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가 주최하는 임장기 교수 초청 예배세미나가 1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예배와 워십" 주제로 목사, 목사후보생, 신학생을 대상으로 회비는 10달러(점심식사, 교안).
▲ 문의: (917)669-0461, (201)401-7520

뉴욕리폼드신학교 2016년 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학사: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석사: 목회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이며, 교회실용음악과(32학점)가 있다. 동 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한다. 개강예배는 2월 14일(주). 오후 6시. 웹사이트 www.rbsny.org, nyrb.org
▲문의: (917)862-0523

스마트폰 강좌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49기)과 중급반(50기)가 개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이며 △초급반 강의는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 강의하며 강 내용은 전화, 메시지, 일정, 알람, 타이머, 사진, 영상, 카톡 등 스마트폰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초·중급반 모두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가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수련회 마지막 날 김성국 목사와 경배와 찬양팀 인도로 제직들이 함께 찬양.

퀸즈장로교회 2016년 제직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6년 제직수련회가 지난 8일 오후 8시, 9일 새벽6시 저녁 8시 그리고 주일 낮 예배와 저녁예배(오후 4시)에 제직 898명과 찬양대원, 교사들 대상으로 은혜롭게 이뤄졌다. 본 교회당에서 열린 수련회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주제로 김성국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제직원의 사명을 다짐했다. 김 목사는 "부르신 곳에서-나는 예배하네"(시 63:1-11), "부르신 곳에서-나는 기도하네"(단6:10), "부르신 곳에서-나는 도전하네"(예4:13-17)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퀸즈장로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016년 시작

뉴욕일원 각 교단노회 일제히 신년하례

뉴욕일원의 각 교단 노회 및 지방회들이 일제히 신년하례를 드리고 2016년을 시작했다. 특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과 뉴저지의 4개 노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신년하례 예배를 드리고 2016년을 시작했다.

KAPC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이영상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리고 2016년을 시작했다.

예배는 이영상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봉독 김병인 목사, 설교 이영상 목사, 신년축사 이규본 목사, 통성기도, 축도 장영춘 목사, 광고 홍준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영상 목사는 "찬양할 이유 있네"(엡3: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연초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복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이미 무한하게 복을 받았다. 창세전에 선택의 복을 받았으며(가라), 그래서 구원받았고(현재),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주신다(미래). 복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찬양뿐이다. 올해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를 위해 △장영춘 목사님과 김혜천 목사님 그리고 노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제목으로 드렸다.

참석 노회원들은 이종원 목사의 식사기도 후 퀸즈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KAPC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는 1월 7일 오전 뉴저지개혁장로교회(담임 박형기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조성훈 목사(부노회장),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 말씀 노회장 이원호 목사, 통성기도, 광고 박형기 목사, 축도 조문신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는 "달빛보다 햇빛이 7배나 더 밝은 2016년"(사 30:23-2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새해가 새해 되게 하고 달빛보다 햇빛이 7배나 더 밝은 해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릇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이 햇빛같이 빛나고 햇빛이 7배나 더 밝은 2016년 축복해주시 것"이라고 말했다.

통성기도의 순서에서는 김재호 목사가 총회와 노회와 지교회를 위해, 이준성 목사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 그리고 테러가 사라지도록 기도 인도했다.

KAPC 뉴욕동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는 5일 오전 11시 뉴욕 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오찬 후에는 윗놀이와 탁구 등 친교를 가졌다.

예배 설교를 맡은 노회장 허민수 목사는 "지혜롭게 순결하게"(마 10:16-2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의 성경적인 기술 두 가지는 지혜와 순결"이라며, "선택할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는 반드시 은혜롭고 순결함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목회현장에서 지혜와 순결이 충동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서기 이상만 목사의 광고와 부노회장 황상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동노회는 참가한 노회원들에게 스마트폰위치를 선물하는 첨단 노회의 모습을 보였다.

KAPC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노회장 조성희 목사)는 4일 오전 11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

를 드렸다.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 기도후 노회장 조성희 목사가 룻기서 2:8-12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성희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6년 한 해를 걸어가 동안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첫째,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올 때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

를 드렸다.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 기도후 노회장 조성희 목사가 룻기서 2:8-12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성희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6년 한 해를 걸어가 동안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첫째,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올 때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



KAPC 뉴욕노회



KAPC 가든노회



KAPC 뉴욕동노회



KAPC 뉴욕남노회



뉴욕센트럴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중부교회, 뉴욕센트럴교회로 변경

21에이커 비전랜드, 올 9월 완공 예정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지난 12월 13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회이름을 '뉴욕센트럴교회(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로 변경했다.

김재열 목사는 "원래 등록된 영어 이름을 한글로 풀어서 사용한 것으로, 다민족 사회와 영어권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소수민족의 이

름 개념에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센트럴교회는 16년 전 LIE(495) 39번 출구 인근인 올드 웨스버리 타운에 교회건축을 위해 21에이커를 구입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타운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말 신축 착공예배를 드린바 있다.

이 비전랜드는 지난 2년간 토목과 조정 공사를 완전히 끝냈고 본당과 교육관 교실 사무실 실내 체육관 등 5만5천 스퀘어피트 정도의 예배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과 350대의 주차장 시설 중에서 현재 30%가 진행된 상태로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화 신년 산상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
	영어 : _____	평신도 ☐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선교의 창 (4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참된 선교사 상

2016,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어떤 해가 될까? 모를 지기 수많은 도전이 안, 밖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직전을 바짝 쳐라야 할 때이다. 특히 각 부야,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가정은 가장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교회 는 목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도자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가 속한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외톨이 아래로 흐르기 때 문이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많 지만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참 목자가 잘 안 보인다.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야니 경건의 능력은 둘째 치고 모양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말짱을 몰카발 하고 시 대의 죄악을 통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살전 99마리 양보다 빈들에서 배회하는 한 마리 양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추는 주도의 종들은 얼마나 될까? 마흔두 성도다운 성도, 장로다 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선교사다 운 선교사가 그리운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 심판
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나 지금이나 신적 권위에 대항하는
인간의 패역함은 변하지 않았다. 단
지 그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동성애, 다
원주의, 맘몬이즘 등으로 사상적
혼돈이 급류를 이루고 있다. 하나
님은 과연 지금 우리의 세상을 어
떻게 보고 계시るか? 의인을 찾으시
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 요구
되는 참된 선교사 상은 무엇인가?

온전한 인격(人格)

인격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 人은 사람, 格은 '바르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인간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그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경향이라고 말한다. 인격은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품격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인격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아신과의 관계에서 옹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격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는 죄로 오염된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줄고 속사람이 장성함으로 그

리스도의 향기 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 한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To do)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To be)인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To Do보다 To Be가 우선이다. To Be가 없는 To Do는 가치가 없다. 일이 사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은 선교사의 사역보다 선교사 그 사람을 본다. 목회현장도 마찬가지로이다. 지도자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느냐 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예의 주시한다. 그러므로 인격이 배워져서 못할 때 사역은커녕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찾는 선교사는 어떠한 자인가?

그는 온전한 인격, 끝없는 희생, 무한한 열매를 추구하는 자이다.

이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노정이다.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에 선교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눈앞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정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빛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넓은 가슴의 사람으로 성화해가야 한다. 이러한 인격은 삶과 사역의 최고 원자재이며 행복의 첨경이 된다.

끝없는 희생(犧牲)

희생이란 무엇인가? 이는 국가나 조직체 또는 다른 사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이다. 희생한다는 것은 종종 더 큰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값지거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있을 인간은 죄 없는 양을 잡아 대신 죽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는 희생을 의미하며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메시야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뜻을 이 사람이 아니라 주를 뜻하는 것이 희생을 통해서 확장되어왔다.

조류 중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은 펠리컨이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인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피뎌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

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다.

회생의 대표자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천년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제를 되셨다. 주님은 자기회생을 통해서 만민에게 살 길을 여신 것이다. 선교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는 자이다. 그 본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아가 죽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 아래서 죽기를 싫어 한다는 데 있다. 회생하지 않고 열매를 취하려 한다.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설사 주님처럼 생명이기는 내

사람들이 기대하고 찾는 선교사는 어떠한 자인가?

그는 온전한 인격, 끝없는 희생, 무한한 열매를 추구하는 자이다.

이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노정이다.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을 순신해야 한다. 진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행위는 믿음을 성취한다. 희생이 없는 가르침은 건조한 매아리가 되기 쉽다.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끝없는 희생이 수반됐기 때문이다.

무한한 열매(果實)

열매란 무엇인가? 과실(果實)이다. 이는 속씨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 또는 그 주변의 기관이 자라 이루어진 것이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이다. 만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그 실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사람은 아무래도 과정보다 결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선교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선교지에 갔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크나큰 색깔보다 변화에 방점이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사역을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왜 사역이 질척거리지는지? 만일 사역적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3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는 나무가 너무 어리다거나 아니면 병들었든지 또는 물라 비를 먹 죽었기 때문이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서 부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포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듯 선교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나무가 땅으로부터 수액을 빨아 먹듯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끊어 없애

매우 맑

이상에서 우리는 이 세대가 기대하고 찾는 참된 선교사 상이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됨이 그저 될 때 가인처럼 우리의 사역은 그릇에 흠뻑되어 질 수 없다. 둘째는 양들을 위해 끝없이 희생을 감내하는 자이다. 이 세상에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희생에 비례해서 확장되어 왔다. 셋째는 무한히 성령의 열매를 주렴주렴 맺는 자이다. 그러려면 자기 포기기가 있어야 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심령이 채워져야 한다.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이 3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이나 끌었는 희생 그리고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은 본시 파생적이고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하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 하셨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100% 향해 나아갈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서로 펴지

파푸아뉴기니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신실하게 저희와 이곳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들을 품고 동역해 오신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흰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 이곳에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고산지대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가뭄의 해갈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하고 있으나 오래 지속된 가뭄 때문에 주로 자급자족의 농산물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들보다 하루에 거의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전기와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10월, 와이마(우쑤, 마틴), 나라(알리, 아우아), 가바디(모레아, 마오니) 각 부족마을에서 흩어져서 일을 하던 형제들이 본부에 모여 집중해서 번역작업을 하였습니다. 김남수 선교사는 각 부족별로 이름을 멘토링하며 함께 맡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눈 것 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의 말씀을 오늘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생선들이 아니라, 즉 세상의 삶의 목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을 몰랐습니다. 어부에게 생선! 즉, 우리가 항상 좀 ‘더 많이’를 구하게 되는 세상의 목표,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우아 형제는 이렇게 나누며 울먹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를 번역하던 중 5장8절 말씀을 번역하던
알리 타바 형제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착하게, 그리고 선
한 일을 열심히 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스스로가 참 빛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나는 그분
의 자녀니까요!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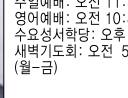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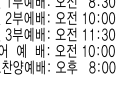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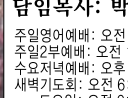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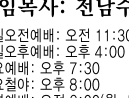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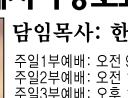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번역하면서 와이마, 나라, 거버니 부족의 번역자 형제들이 점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기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열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들이 속해 있는 부족이 변화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선교사는 부족형제들이 각 마을로 돌아간 후,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동료선교사들의 주가복음(자기 부족)을 자문점 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문점검 중에 현지인으로서 번역 자문위원으로 나온 중인 라반(와스키아부족), 그리고 우피(와이마부족) 형제들을 참관시켜 훈련하는 일도 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덕신 선교사는 언어사역부 대표 일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파푸아뉴기니의 특징이 850여개가 넘는 언어부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내년 2016년에는 저희 선교단체가 아니라서 사역을 시작하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205개의 신약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현재 150 여 언어로 성경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대표들이 번역팀을 둘 것이고, 또 여러 지역 센터에서, 본부에서 성경번역, 문해사역, 성경활용, 지도자 훈련 등, 길고 짧은 다양한 훈련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새로운 대표진들과 함께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여러 훈련과정을 점검하고, 지역대표들과의 회의를 주관하며, 센터의 사역들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일로 분주하게 지냈지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김남수/이덕신 선교사 드림
ns-ds.kim@sil.org.p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주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주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한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주일성경학교: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월-금)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공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수요일주요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전 1:45 EM새배: 오전 1:30 대학생찬양: 오전 10:00(매)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주요예배: 오전 8:00 금요일주요예배: 오후 8:00 대학생찬양: 오전 10:00(매) 오전 11:00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주요예배: 오전 10:45 수요일주요예배: 오전 8:00 주일4부예배: 오전 8:00 대학생찬양: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2)579-7578,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Tel.(303)364-1621 389 Quailmont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	Tel.(704)528-0900 / 0998(백스컴)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Tel.(206)527-0891, Fax.(206)524-4746 4040 N.E. 105th St. A, WA 98125 www.kpcpsettle.com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ittle Rock, AR 72211 www.omychurch.org	Tel.(501)920-9049, 새벽예배.(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es.com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교회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ltas Ave, El Paso, TX 79904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전 11:30(매)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워싱턴에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매) 수요일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크신 은혜로
저희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입당예배와 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입당하기까지 기도와 사랑과 건축헌금으로
격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동참해 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목사 조응철

담임목사 조응철 외 성도 일동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5시

장 소: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702)579-7576, (702)296-9193



갈보리장로교회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5)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인 "성경적 세계관 및 인생관에 근거한 성경적 교육관"을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에 있으며, 오늘은 그 형이상학 범주에 속한 구체적인 하부 범주들 중에서, "인간론(On human: View on human)"에 대해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와 관련이 되는지를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인간론이란 존재의 근원을 묻는 형이상학의 범주에 속한 철학적 담론으로서 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을 묻고 그 해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간론은 어떠한 존재의 본성 및 근원을 묻는 존재론(Ontolog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이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즉 세속적인 학문들을 토대로 한 인간에 대한 관점 아니면 성경을 토대로 한 인간에 대한 관점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점에서나 이해의 틀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못한 이해는 오히려 무지하고 부족한 이해보다 더 부정적인 교육행위 및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교육에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육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의 영향아래 인본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교육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가는 우리의 교육 사역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지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라 인간은 단지 물질적/육체적 특성 및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주로 행동주의 교육철학에 의거하여,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의 감정 및 정서적 측면 및 영적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테지요. 또한 상과 벌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어떠한 자구에 대응하여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 내도록 훈련 할 테지요. 영혼을 가진, 감성을 가

성경에 기초한 인간 이해만이 교회교육을 위한 핵심적 철학적 기초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 이해하고 근거하는 교육이 하나님 뜻에 부합

고 할 수 있지요. 그리하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존재하는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심오한,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가까운 질문들을 묻게 됩니다. 더 가깝게는, 인간론 및 존재론적 질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묻고 그 해답을 도출하고자 여러 가지 근간들을 토대로 사유하는 철학적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론/인간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목적, 존재, 및 근원에 대한 질문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이 한인 교회 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세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섬기도록 위탁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에 대한, 그들이 인간으로서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존재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들을 통해 교육자들은 그 이해한 바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교육적 관점을 세우고, 그에 따른 교육적 노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교육 행위 및 교과과정에 대한 바로고 알맞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 때

의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무한 긍정을 그 주된 관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이 가진 능력을 매우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및 부정하면서 인간의 지성 영역에서 형이상학적 요소를 빼고, 지식의 주된 원천을 인간이 오감을 통한 경험으로 외부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죄성 및 타락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성의 한계치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인간을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 받은 존재로 이해하며 이에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절대적으로 무한할 수 없음을 설명한 기독교적 인간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 이해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사실 오감의 경험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인간 자신 스스로가 목적이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알 수 없다고 함으로서 인간의 영성 및 여러 가지 감각적 인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특성들을 부정해야만 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바 영과 육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성경적 인간관과는 완전히 대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성경적 인간관과는 판이한

진 존재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실용성 이외에 도덕과 윤리를 추구할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교육철학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한인교회교육을 위해 세워야 하는 철학적 기초는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과 지체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은 본질상 기독교 교육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육사역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목적, 존재, 및 근원에 대한 질문을 묻고 그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가 아닌, 성경을 토대로 한 해답을 내는 과정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철학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경적 대답이 바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중심적인 철학적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학문이나 자료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이해야말로 우리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핵심적 철학적 기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사고능력을 사용하되,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 더 하는가를 기초로 하여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우리 안에 장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성도의 싸움(유1:3-4)찬461장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복음전도자, 유다의 권면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 구원을 지키는 싸움입니다(3).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공급하신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둘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3).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시작

하신 구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장점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셋째, 거짓 교훈과의 싸움입니다. 이 순수성 때문에 거짓 교훈이 많이 공격합니다(4).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하여 참구원의 삶을 이루어야합니다. 새해는 이 영적 싸움의 전사로 살아갑시다.

화 기억나게 하는 이유(유1:5-7)찬177장

유다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신 구원의 도를 기억나게 함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첫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망한 자들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생기는 타성을 이기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합니다(5). 둘째,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장의 타락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천사장의 타락을 자세히

말하지 않을지라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을 유다는 가장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기 자리를 경멸히 여김으로 망하게 된 것을 볼 때 처음 받은 구원을 성실히 지키는 겸손함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6). 셋째, 소돔 고모라의 음란행위를 통해 가르쳤습니다(7). 이들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울을 통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됩시다.

수 짐승 같은 이단을 경계하자(유1:8-11)찬174장

유다가 이단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그들은 거짓된 호기심을 가지고 슬며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8). 여기 "꿈"은 이단을 퍼트리는 주요수단을 말해줍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마음을 졸리게 할 목적에서 거짓을 통해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합니다. 둘째, 권위에 도전합니다(9). 교회의 권위는 부족할지

라도 존중돼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8). 그러나 사탄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도매금으로 교회의 영광을 더럽힙니다. 셋째, 생각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10). 성경을 근거한 생각이 귀합니다. 이것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구원의 도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목 이단의 특색(유1:11-13)찬318장

살아계신 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11).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손의 길을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인간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애로 기울어집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만 취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12).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버젓

이 자기의 욕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합니다.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애찬의 압초,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거친 바다물결로 비유했습니다. 요란하나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발달된 상태에 치우쳐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13). 마침내 그들은 지옥의 혼란 속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됩시다.

금 에녹의 예언 (유1:14-16)찬204장

창세기에 언급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한 사역이 예언이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주의 강림하심을 예언했습니다(14).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그 자체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사역이었고 믿는 자에 대해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재림하실 그분의 사역은 이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실 것입니다.

니다. 둘째, 그의 심판은 언행심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15). 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경외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탐욕 그리고 교만한 말로 아침의 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살핍시다.

토 성령이 없는 사람(유1:17-19)찬446장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은혜로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경계해야합니까? 첫째, 그 구원은 종말 때에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 구원은 성령이 친히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새해가 이런 시대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가야합니다. 둘째, 정욕위주의 삶을 경계해야합

니다. 여기 나온 정욕이란 인간속의 죄악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욕을 제압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잘해야 합니다. 셋째, 분리운동을 경계해야합니다. 진리의 명분 없는 이탈행위는 죄악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합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뚜렷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조직 (2016)

대표고문

대표총재

총재

대표회장

조용기 목사

피종진 목사

이종인 목사

장상은 목사

신년하례감사에배

일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T. 02)741-4361

1호선 종로5가 2번 출구 100M 연동교회 신협골목

여성대표회장

총괄위원장

준비위원장

진행위원장

오영자 목사

김향두 목사

김현중 목사

조미자 목사

설교

신년사

사회

축시

축도

축사

축사

축사

축사

축사

축사

축사

피종진 목사

이종인 목사

장상은 목사

김원준 목사

박희중 목사

김수진 목사

손동아 목사

곽도희 목사

전용만 목사

장효근 목사

김중기 목사

대표기도

성경통독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헌금기도

광고

예배특송

봉헌특송

특송

특송(위임)

오영자 목사

김현중 목사

이강호 목사

김정호 목사

최옥순 목사

서채석 목사

이철영 목사

김향두 목사

조미자 목사

장부선 목사(위임)

김중기 목사(위임)

김진복 목사(위임)

총무부총재

실무부총재

실무부총재

운영부총재

교육부총재

선교부총재

기회부총재

사회부총재

육성부총재

홍보부총재

교협부총재

여성부총재

선임부총재

전도부총재

김원준 목사

이기웅 목사

김중기 목사

이강호 목사

최원석 목사

황수석 목사

곽도희 목사

조찬옥 목사

권병오 목사

김정호 목사

문용현 목사

정명희 목사

김진복 목사

최옥순 목사

경제부총재

비전부총재

부흥부총재

동원부총재

상임회장

실무회장

전도회장

부흥회장

사회회장

음악회장

문화회장

선교회장

기회회장

운영회장

김향두 목사

김봉숙 목사

김태자 목사

김현중 목사

류재훈 목사

이철영 목사

정명희 목사

김형용 목사

이우성 목사

정병기 목사

선정윤 목사

강봉희 목사

박영복 목사

김은자 목사

여성회장

교협회장

지도회장

교육회장

위설회장

홍보회장

예술회장

설의회장

환경회장

총무국장

재정국장

재정부국장

선교국장

영성국장

장부선 목사

김안나 목사

손순애 목사

조미자 목사

권병수 목사

지미숙 목사

김중옥 목사

한혜정 목사

도강을 목사

강우선 목사

김호연 목사

서채석 목사

백재현 목사

김창수 목사

영성부국장

지연부국장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중부

서울남부

서울동남

서울북부

서울북동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중앙

경기북부

인천동부

김호권 목사

전용만 목사

최기학 목사

정영근 목사

최영환 목사

실동욱 목사

장현운 목사

김명재 목사

황규현 목사

조예환 목사

최요한 목사

김한배 목사

김상기 목사

박동순 목사

인천서부

부산

대구동부

대구서부

광주동부

광주서부

대전

울산

강원

충북동부

충북서부

충남

경북

경남

이영선 목사

이만규 목사

김승광 목사

한명수 목사

정현성 목사

임부성 목사

이영환 목사

김정용 목사

장효근 목사

김영태 목사

호세길 목사

김성기 목사

김승동 목사

정동호 목사

전북동부

전북서부

전남동부

전남서부

제주동부

제주서부

국토총재

여교역자위원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교육회장

교협회장

운영회장

원팔연 목사

김영섭 목사

이석권 목사

오현석 목사

박안세 목사

신관식 목사

최석봉 목사

홍정애 목사

이향원 목사

김봉순 목사

이혜현 목사

방미석 목사

이란이 목사

진오선 목사

부흥회장

여성회장

위설회장

전도회장

설의회장

동원회장

환경회장

기획회장

사회회장

육성회장

비전회장

위설부회장

서기

회계

최경애 목사

김미라 목사

유하영 목사

이선화 목사

김정희 목사

최은혜 목사

허정희 목사

이덕심 목사

권현환 목사

김향주 목사

김미숙 목사

김광숙 목사

문민경 목사

박필환 목사

2016년도 월례회 및 국내외 성회(선교)

1월 11일(월) 신년하례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월 15일(월) 월례회

장소

춘천동성교회(장효근 목사)

3월 7일(월) 월례회

장소

드림선교회(오영자 목사)

4월 10일(월)~20일(수) 부흥성회 및 월례회

장소

군산한빛교회(정명희 목사)

5월 9일(월) 월례회

장소

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

6월 19일(월)~29일(수) 부흥성회 및 월례회

장소

대전동성교회(정명희 목사)

7월 18일(월) 월례회

장소

구미상모교회(김승동 목사)

8월 22일(월)~24일(수) 영성수련회

장소

부여수영관(김요한 목사)

9월 5일(월) 월례회

장소

원주사랑교회(이종인 목사)

10월 17일(월)~19일(수) 부흥성회 및 월례회

장소

김해주안교회(정명희 목사)

11월 7일(월)~11일(금) 한복은 제3차 필리핀 선교대회

장소

남서울중앙교회(최종진 목사)

12월 12일(월) 정기총회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복은 제3차 필리핀 선교대회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 11일(금)

장소

필리핀 지역

모집인원

30명(선착순)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분

주최

한복은 선교위원회

한복은 아카데미 전도·설교학교

개강

2016년 3월 11일(금) ~ 7월 29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

장소

한복은 아카데미 세미나실

대전

중구 오루동 154번지(센트리아 오피스텔 802호)

학장

정명희 목사 010-3827-9221 / 010-6359-3757

대상

목회자·여교역자·신학생

한복은 아카데미 찬양학교

개강

2016년 3월 11일(금) ~ 7월 29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세계선교찬양교회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대현로17길(기독교회관 옆)

학장

조미자 목사 010-5449-9181 / 사무실 02-262-9181

대상

목회자·사모·찬양사역자를 지망하는 평신도